

3.8 여성의 날 투쟁기획단 4차모임

일시: 2004년 3월 4일 늦은4시
장소: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신원대여성노동조합 - 성신 3/8 기획단
이영희

성신·신원대여성노동조합
(- 신리 교도관 가사 퇴직 때문에
늦었다.)
- 제이에서 내일 나고
(주부)
- 영화 사영영(바라봄사각)

성신: 몸매와 함께 생활하는 것
신원대, 우정재단 등으로 인리고.
A- 재발견
간담회 재발견서 불만을 제기
불일수 있게
기시교양대회...

신원대 수저

교대: 여학생의 1년 내기 프로그램
태양재기반성
3/8 2004년 여대생에게 할 것
논의중.

관영: 기숙사별로 1개당 10명 이상
사회대 교양잡인하고.
주체적 의미로 10명 이상

성신: 태양 재발견 사각

야대 하위사회 재발견사업 재발견
(7개 재발견사업 3/5

→ 성신 주체적 재.
기숙사별로 10명 이상
늘리기 (주영영사각)
가장 실패하는 팀은
여성의 몸, 노동권, 생활권.
동아리(?) 태양재
기시교
신원대 재발견에 사각재

■ 참가단위 확인

■ 논의안건

- 2004년 3.8 여성의 날 문화제
- 간담회
- 광장사업
- 투쟁대회 → PC 서부기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 평가모임 → 재발견이나 형식 등에 불일수 있는
가난한 사각재 (혹은 재발견)

■ 점검사항

- 팩 2000개 (클립에) - ~~...~~ 등요자
- 풍선 등요자, 여대생들은 기간 3.8 여성들의 날.
- 분담금 총화: 금요일까지 총화. 경원대 병사정대
- (농협: 장성에 029-12-38451)

■ 평가모임 일정을 정합시다.

3/19. 6시. 교대.

38 여성의 날 맞이 문화제 “삐삐를 부르는 환한 목소리”

■ 문화제 기획의도

여성의 날은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성의 눈으로 세상과 싸우는 날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무서운 폭력 앞에 이중으로 착취당할 수 밖에 없는 여성의 삶을 폭로하고, 여성의 투쟁이 우리 모두의 싸움임을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몸, 가족 그리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성의 삶 전반을 여성의 눈으로 그려냅니다. 38 기획단 총기조에 맞춰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삐삐와 이야기 하기”

늘 ‘조신하기’, ‘단정하기’ 등을 강요 받는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삐삐는 그들이 정말로 바라는 자유를 알려주며 그네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세상에 알려주었다. 전형적인 성별 이미지를 교란시키는 통쾌함과 자유, 이것이 삐삐가 아주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사랑 받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주위의 모든 존재, 사람뿐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동물까지도 다 친구일 수 있는 삐삐는 어른들처럼 어떠한 경계를 두지 않는다

여성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항상 드러나는 고통스러움과 문화제 자체도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존재합니다. 여성의 삶이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삐삐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성의 삶이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지 마음껏 표현해 봅시다. 삐삐가 그랬듯이 여성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고통을 관계맺음을 통해 함께 해결하고, 싸울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자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 진행상황

현재 섭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삐삐; 성신여대

사회자; 성신여대 인문대 학생회장

□초청 섭의 완료

- 소풍가는 날/ 안혜경

- 사회진보연대 연극패 “빵과 장미”

□문예단위 섭의 중

서울교대 문선패 길벗/ 서울대 문선패 참/ 경원대 노래패 우리누리소리/ 성신여대 기획단/ 전여대협 단위

□발언 섭의 중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연대사/ 여성운동 단위/ 전여대협 단위

□영상 및 음향

여성문화예술기획 “너네엄미는 뭐하니”/ 여성노동권 관련 영상 제작중

□나머지

사회자 대본 작성 중/ 큐시트 작성 중

■ 문화제 전반/ 행사당일

문화제에 더 많은 단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단위들은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6시부터 문화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체 문화제 시간은 1시간 30~2시간 정도입니다. 시간을 엄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단위 동지들은 꼭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제가 진행되는 공간 곳곳에 각 단위에서 선전물을 준비해 오셔서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카지씩 만들어서 가지고 옵시다! 이곳에서 부대행사를 진행하실 동지는 말씀해 주십시오.(각종 선전전이나 연대단위 선전 등)

■ 투쟁국 계획서

0. 들어가며

동지들에게 일단 사과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6일에 기획되었던 광장사업이 실제 경찰서 측의 비협조로 인해 그 날 진행하기 힘든 조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 기획서를 같이 논의하고 결의하는 방식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1. 간담회 준비

3월 2일 노동청 집회 후 간병인 공대위를 통해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안 결과 5일 5시에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며, 이후 간병인 동지들을 만나 기획안을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의 방식은 단지 서울대병원 간병인 동지들의 투쟁과제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간병인 동지들의 노동과정에서 겪었던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노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지들의 사정상 7일로 연기하는 것이 어떻게느냐는 말씀을 드렸지만, 간병인 동지들의 개인사정상 7일은 단 한 분도 나오실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예정대로 5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2. 38 투쟁대회

3월 8일 3시에 서울대병원에서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행방식은 1부 집회와 2부 선전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 집회의 경우 비정규직과 여성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2부의 경우 서울대병원 간병인 동지들이 점거투쟁을 한 경과와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는 병원 내 선전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광장사업

원래 6일에 인사동 거리에서 광장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본 결과 집회신고서가 처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오늘(4일) 다시 한 번 종로경찰서를 찾아갔으나 다시 반려당했습니다. 첫 번째때 알려지지 않았던 사유로써 노점상 동지들의 투쟁이 잡혀있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전노련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장사업을 7일로 연기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장소는 돈암동 4거리에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진행방식은 저번에 제안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광장사업의 경우 각 학교에서 준비를 해오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거리전을 동지들이 결의를 해주셨으면 하구요, 거리전의 주제는 반성폭력, 여성노동권, 여성 실업 등 기조와 연관된 주제로 가고자 합니다. (3차회의 안건 참고)

상대 - 교대 700명

교대 - 대자보(홍남) 기거해서.

스티커 만들기

(성신 - 사인판, 개인이랑 함께 걸기 (터덜))

김스터디터디터

(노동업가운 입고 양 어깨에 시가 메고
성폭력 피해자 시가 걸어서 시가 만들기
나비를 걸고(물고) 유인물로 붙여주기

가장관리가 어떻게
주체적으 시가 걸 수 있는지

■ 광장사업 유인물 계획서

(앞)

요즘 여자들, 그대보단 살기 편하다고요??

오늘날 여성들은 한 인간으로 여겨지기보다 '여자'로 성적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성의 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의 위협에 떨어야 하고, 몸과 외모가 상품의 하나로 여겨지는 이 사회는 여성의 삶을 크게 제약합니다. 이윤만을 위한 경쟁질서 속에서 가장 먼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서도, 가사일과 육아의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는 편견 때문에 슈퍼우먼이기를 강요 받는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해 볼 때에도,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아직도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더 이상 '여자 팔자가 다 그렇지'라고 체념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나의 어머니, 자매들과 함께 여성의 억압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요구를 외쳐낸다면, 변화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96년전 미국의 여성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2004년 3·8여성의 날은 우리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가기 위한 힘찬 연대의 날이 될 것입니다!!

1. _____
2. 3/8 유래,
3. 코디한하겐 연서로문중.

(뒤)

여성의 몸의 권리를 여성에게!!

인간이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인권의 기초입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더 이상 대상화되지 않을 때에야, 우리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비하하는 말들과, 시선과, 폭력과, 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여성이 여성의 몸에 관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요구해야 할 여성권입니다!

여성에게 평등한 일자리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서 차별받고 구조조정에서는 1순위가 되는 현실에 이제 반기를 듭시다. 여대생 실업 해결, 여성의 비정규직화 반대, 여성의 빈곤문제 해결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여성의 억압을 깨뜨리기 위한 구호들입니다. 또, 평등은 동등이 아닙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이 한 사람의 당연한 노동자로서는 그날까지, 여성에게 평등한 일자리를!!

여성에게 전가되는 이중노동부담반대!!

삶이 어려워지면서 일용직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여성에게 직장일과 가사를 병행하도록 하는 이중의 노동부담을 감내하게 합니다. 가사노동은 사회 전체의 생산에 꼭 필요한 재생산 노동입니다. 더 이상 여성과 가족이 이중노동부담의 짐을 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재생산 노동의 사회적 해결을 요구합시다!

✓ 212 212 " "
✓ 일전 등 광고

1000부